

탈수에 어지럼증...택배·건설노동자들 '폭염과 사투 중'

야외 노동자들 힘겨운 여름

광주·전남이 연일 펄펄 끓고 있다. 33도가 넘는 폭염특보가 9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폭염에 노출된 채 뛰어나고 있다. 19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5.7도가 넘었다. 물·그늘·휴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작업장에 권고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이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덥다는데, 수도검침원,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이런 수칙은 도움이 되고 있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광주일보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택배 노동자, "무더위 시간을 피하라는데... 말이 쉽다"=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서구 덕흥동 물류창고에서 만난 CJ택배 노동자 문희승(51)씨는 오전 7시부터 분류작업을 끝내고 택배 배달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배달을 시작한 서구 화정동에서 대 인근에 주차하고 물건을 내리면서 시작된 땀은 금세 비오듯 쏟아졌다.

문씨의 파란색 유니폼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하루평균 200개가 넘는 택배상자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해 시작부터 뛰어다녔다.

노동부의 폭염 안전대책(물·그늘·휴식)은 문씨에게는 예외였다. 물 한모금 마실 시간도 여의치 않았다. "물량을 정해진 시

30kg 들고 계단 오르면 땀 범벅

건설현장 땀별 근로에 파김치

휴게실 있어도 큰 역할 못해

발뭇 파는 검침원 날마다 곤욕

무더위 속 건강 대책 마련 시급

간 내 배달하려면 휴식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문씨는 말했다. 배달 출발전 고객들에게 통보한 배달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폭염에 무거운 택배를 나를 때면 숨도 가쁘고 힘이 빠진다. 30kg가 넘는 택배상자와 씨름을 하다 보면 진이 빠진다고 했다.

그나마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가 가장 시원하다. 하지만 배달을 위해서는 몇m마다 주차를 해야 하고 골목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다보면 차량에 있는 시간은 하루종일 일하는 시간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문씨는 "폭염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배달을 끝마치면 머리가 멍하고 탈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도검침원, "도로 전체가 찜질방이네요"=광산구 수도 검침원인 김광필(55)씨의 노란색 옷은 땀으로 젖어 색깔이 변했다. 덥지만 고지서 종이·검침기·장갑 등을 놓아야 해 조끼까지 챙겨입어야 한다.

김씨는 19일 오후 1시께 광산구 산정동

일대를 비오듯 흘리는 땀을 닦으면서 고지서와 검침기계를 들고 돌아다녔다.

김씨는 "수도검침을 위해 하루평균 12km, 1만 5000보 이상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주택가와 공장들을 돌며 고지서를 배달하고 수도 계량기 덮개를 교체하러 걸어들고 허리를 숙이고 계량기 숫자를 확인, 검침기에 입력하는 단순작업이지만 온종일 걷는 일이다보니 내리쬐는 햇빛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무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철이면 평소 출근시간인 오전 8시 30분보다 1시간 30분이나 먼저 시작하지만 찜통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강렬한 햇빛에 아스팔트 열기, 지나다니는 차량 열기까지 합쳐지면 숨이 턱 막힌다.

김씨는 "하루 200여개 계량기를 확인해야만 한 달 검침분량을 채울 수 있어 막노동 휴식하기란 남 얘기"라고 했다.

온종일 걷는 일. 생수는 필수다. 하지만 500ml 생수 6병도 자신이 구입해야 한다.

아파트를 맡은 검침원들은 더하다고 한다. 아파트 동마다 계량기가 무거운 철판으로 덮여있는데, 10kg가 넘는 철판을 들고 지하1~2m를 들락거려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사무실에는 냉장고를 시원한 얼음물도 비치해놓고 있어 편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검침원들의 야외 폭염 대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 "야간에는 민원땀에 일 못해"=19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첫은 서구 능성동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오피스텔 1층에 있던 건설 근로자 30여명은 점심 중에도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근로자들 휴게실이자 식사장소로 이용 중이지만 선풍기는 고사하고 회색빛 콘트리트로 막혀 바람조차 잘 들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무섭게 제빙기에 담긴 얼음을 컵에 담아 들고 햇빛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부는 밖이 낫다는 것이다.

19층 높이 오피스텔 가운데 6층 공사가 한창인 이 현장은 휴게실에 선풍기를 두는 대신 작업자들이 작업 중 내려와 쉬는 5층에 설치했다.

목수일을 하고 있는 박모(50)씨는 "2~3시 사이에 햇빛을 맞으며 작업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핑' 땀 때가 있다"며 "그렇다고 아침 일찍 공사를 시작하거나 오후 6시에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빗발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15분 휴식이 주어지지만, 건설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상청의 폭염경보와 빗발게 안된다"며 "달리진 철근 위에 서있으면 체감 온도는 60도를 넘어선다. 정부당국에서 30분 근로, 30분 휴식을 할 수 있는 폭염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건설현장 휴게실은 단순한 그늘막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없다"며 "냉방시설을 도입해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9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택배노동자가 무거운 택배 박스를 배달을 하고 있으며(위), 광산구 산정동 수도 검침원은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야외 노동자 폭염 대책 '시늉만'

현장 파악 제대로 안돼
실질적인 지도·감독 의문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무관심도 작업 환경 개선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자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80여곳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폭염 대책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게 골자로,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배달·검침·집배·방문판매·전자제품 수리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달라는 주문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폭염경보 땀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땀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를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하고 무더위 시간(오후 2

시~5시)를 피해야 한다.

노동청은 그러나 폭염에도 옥외작업이 진행되는 광주·전남지역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동자들 현황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노동청이 현장에 찾아 폭염 대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진행하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폭염 특보가 매일 내려지고 있지만 폭염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근로환경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커녕, 형식적으로 폭염 대책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환경 훼손 우려 태양광발전시설 불허는 적법"

"해남군 재량권 남용 해당 안돼"
2개 지역 소송한 업체 패소

자연경관이 우수한 장소를 보전하려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또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미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미관과의 조화 등을 반영한 공익적 필요성을 적극 인정할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태양광발전업체인 A사가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해남군 현산면 구수골계곡, 포

레스투스목원 인근 저수지(사용 수면면적 1만8180㎡)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1.5MW)을 세우려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저수지는 구수골 계곡과 연결되고 포레스투스목원과 인접해 있다. 또 해당 저수를 둘러싼 봉동길은 국가트래킹코스인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중 '미황사 역사숲길' 구간에 포함되는 등 자연 관광자원으로 보전할 공익적 가치가 높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설물의 장기간 설치운영에 따른 생태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바 없고 자연재해 및 인위적 영향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

다.

이미 동일한 환경의 함평대동저수지, 진도 수장저수지, 고흥 오월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만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는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염기창)에도 해남군 '땅끝천연 숲 옛길' 지선인 산자락길에 포함된 용동길 인근 저수지(발전시설 면적 5만3084㎡)에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반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B사 등이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다 반려된 뒤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지역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주변 자연경관, 미관이 훼손되거나 녹지축 절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남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만취 경찰 오토바이 몰다
자전거 끌고 가던 시민 치어

경찰이 만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60대 주민을 치었다. 경찰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무색하게 한데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임 자체 권고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1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 소속 A 경위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A 경위도 B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비번인 날, 능주면 농공단지 내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